

정신체의 자기 주인공을 무조건 그냥 믿어야 합니다

29면에서 계속

어차피 죽을 때 버리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을 때 다 버리고 죽는데 이 마음이 버리지 못한다면 이다음에 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고 세세생생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모두 판 사람들도 하나 이렇게 팔쪽 쥐고 끌어 잡아당겨 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행동하세요, 그냥.

부딪치는 어려움이 많은데...

문 지원에 다니면서 주인공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부딪치는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끄달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는지요.

답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법당에 올라가면 법당에 삼 배를 올리고, 또 답하면은 일 배를 올릴 때에 동글려서 올리고, 동글려서 또 여기다 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걸 어떻게 들습니까? 여러분이 5년이고 10년이고 왔다고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다녀요. 왜 법당에 들어가면 저 부처님도 내 모습과 들어 아니요, 노래도 그렇게 해 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아시라고 노래도 해 놓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시고 왜 그러십니까?

이게 보이는 데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데도 더 많다면 많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비스비스 다니면서 어떻게 사세요? 내 주인공이라는 그 주장자 하나 가지고선 저 거 하면 좋은 일 해 주고 그냥 언짢은 일은 언짢은 일대로 좋게 퍼 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도 해 주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안해요? 원수 짓지도 않고 세세생생, 아니 끝간 데 없이 가도 '저거 내게 원수야.' 이러지도 않을 거고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롭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자체가 없다는, 너라는 게 영 없는 그런 자체가 부처란 말이예요. 알고 보면 하나도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 아닌 나가 있으니까요. 나 아닌 나가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 만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체 화현의 도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는 그저 응용하는 대로 이 팔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다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흠뻑 그냥 심부름꾼이예요. 그냥, 절에서 따진다면 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따지고 보세요. 심부름꾼을 바깥으로 두었다면 다 못합니다. 시자 노릇을 바로 자기가 보이는 걸로 자기가 시자를 두었기 때문에 그 안 보이는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을 다 하죠. 그래서 모두 안목이

있죠. "아, 이분은 정치에 나왔는데 좀 쓸만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누구나가 다 보면 "가벼워서 좀 안됐어. 그 값어치는 좀 못돼." 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분들이, 여러분이 다 도인이예요. 그냥 부처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이게 내가 먹는다고 "아, 맛있게 먹었어. 참 잘 먹었네." 이러지만, 그게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모두 자기 역할대로 달라고 그러는 게예요. 먹으려고 생각을 해 놓고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이 쪽 있으면 이게 거기서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집어 먹게 되죠. 그거 먹게 되고 그러면 그거 여러 가지 이렇게 집어 먹게 되면 여기서 소화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안에서는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었다고 그러는 거죠.

말도 자기 말이 아니라 모두 거기의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참 귀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게 부모의 은덕으로서 몸을 받

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한 생각을 잘하면은 업이 업이라고 할까 고통이라 할까, 그 고가 그냥 흐르듯이 풀어지는 거고요, 한 생각을 잘못하면은 그냥 오그라지는 거죠. 뭐, 사람이 풀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잘 배워서 잘 살고 이렇게 해서 세세생생을 엮어 가도 조금도 손색이 나지 않게끔 하시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주인공을 찾아도 별 볼일 없나.'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말을 편지 않게 해 놓으면은 내 마음은 항상 편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지 않게 해 놓고 편지 않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해 놓고 사세요. 죽으나 사나 이젠 자기 죽을까 봐, 미리 죽을까 봐 편안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다가 있다 죽는대도 편안하게 해라. 편안하게 말을 해라. 죽는 게 뭐 그리 아까우냐. 아, 사실이지 죽는 게 뭐가 그리 아깝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이 모습 활짝 벗어 버리고선 내 갖고 싶은 대로 가질 텐데 뭐 걱정입니까? 하여튼 편안하게 거짓 없이 큰 말이든지 작은 말이든

지 말고 그냥 그렇게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넘어가죠. 넘어가게 되게끔 되겠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고통이 있다, 뭐 있다고 그러고 그냥 애쓰지 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본래 성불되어 있는데 어찌 업이...

문 불교에서는 증생도 본래 성불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찌 그 자리에서 업이 생겨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자기가 와서 자기가 살고, 자기로 자기가 가니깐 간 데도 없고 온 데도 없고 그냥 영원한 것이 자깁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그 자체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 한 백지장 사이를 모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몸통 속에서, 이 육통 속에서 벗어나야 누진으로서, 누진까지 육통이라고 한다면, 육신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그 누진으로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통이라고 한 거는 바깥으로

꾸 넣어요. 아리송하면은 그냥 아리송한 대로 그냥 '난 아리송하니까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알릴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말입니다.

동굴 안에서 어떤 공포심이 들었어요

문 제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안에 부처님이 한 이만 여섯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쁜 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똬지 모르게 어떤 공포심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그 내려다 보시는 부처님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들었던 생각이 '아, 정말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음을 모아가고 극진하게 삼 배를 올리고 들어갔더니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 부처님 상들을 자세히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답 그게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당신 생각이요, 돌아와서 다시 하고 들어간 생각도 당신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그저 양면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생각을 '아, 역대에 내려온 저 부처님들이 다 내 근본과 들어 아니지. 그 모습도 내 모습과 들어 아니지.' 하는 생각의 지혜를 갖는다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없이 그냥 아마 즐겁고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 사람을 보든지 귀신을 보든지 선신을 보든지 놀라지 말고 항상 들로 보지 말라 이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환상으로 내보내는 작용이다 하는 것만 알면은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그 자리에다 도로 놔 버린다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어떤 문제가 닦치더라도 '이건 시험이다.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하고 그냥 거기다 놓으면은 아,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어디 딴 데서 나오니까? 그래서 '응, 네 의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 속지 마라. 나오려면은 그 네 주인공에다 모두 임의를 해라.' 이런 걸 알아들으면 굉장합니다.

그게 딴 데서 온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의식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말이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건데 딴 데서 귀신이 온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귀신으로만 알아요. 그러니 상대가 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 마음 안에 그냥 영아가 그냥 셋도 들어가 있고 그냥 둘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도 딴 데서 들어온 게 없이 '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하고선 모든 걸 속지 말고 그냥 주인공에다 일임하고 '너만이 이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곤 그냥 모두 거기다 맡겨 놓으면은 다 편안할 거를... 이해가 갑니까?

알고보면 하나도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나 아닌 나가 있으니까요.

나 아닌 나가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 만법을 가지고 있고 일체 화현의 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고, 내가 이 귀한 원소 자체를, 자불이라는 원소 자체, 그것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알았다.' 그 에너지의 한 방울에 의해서 이 우주의 에너지를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한 덩어리 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구에서 살면서 에너지가 이제 는 우리가 너무 써서 에너지가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 뭐 어쩌느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나부터도 그렇다면 못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운전수로 산다면요, 보이는 차로만 살지 말고, 운전수와 이 보이는 나와 같이 다니면서, 보이는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게끔 돼서 이익을 주고, 또 그 안 보이는 데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면 안 보이게끔 해야만 하는 것이 절반 이상 남죠.

그래서 '업을 짓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업이 없다.' 이랬습니다. 업이 없다고 그런 것은 '컴퓨터에 업이 있어서 나오는 거를 거기다 그냥 보라. 거기다 맡기고 그러면 그 게 뒤집어져서 그 업이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니깐 업

지, 아단을 맞든지 어떻게 되든지 죽게 되는 지 그거를 생각지 말고 편안하게 거짓 없이 사시란 말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시고 이 도리를 '아, 관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내 원소로구나. 내 공체 원소구나. 그러니까 에너지 주장자구나. 내 자불성이구나. 내 자불성! 그러니까 꼭 나는 나를 믿어야 되겠다. 누굴 믿느냐?' 이렇게 하세요. 이 세상에 누굴 믿을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믿는다는 건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진짜 원소 말입니다. 생명력을 그대로 자불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세요. 그냥, 진짜로 믿고 어떠한 통탄할 일이 생겨도 '너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기세요. 마음을 나쁘게 하고 그걸 나쁘게 진행하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런다면은 막아 나가는 것도 부처님 법입니다. 잘못될 일이라면 막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막는 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굳이 해야겠다 그러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도 속이

나와야 그 내 모든 것을,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이 속에서만 복잡거리지, 이거를 굴릴 수가 있습니까? 바깥으로 나와야 이걸 마음대로 굴리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또는 먼저도 없으니까, 나중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해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고, 한다고 그러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뿌리요 인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대로 뿌리에다가 맡겨 놓고, 마음으로부터 '너만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끌고 다니고, 또는 빛이 나게 하는 것도 너고,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너고,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것도 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너고, 또 굶고 살지 않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살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다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아야 합니다. 이유를 자꾸 따지면은 그 속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말고 거기다가 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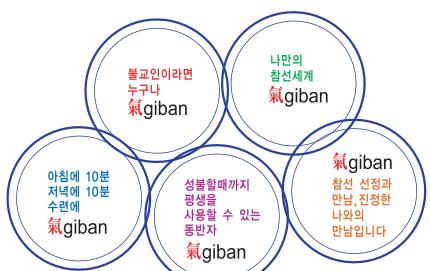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크기 : 직경 10mm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